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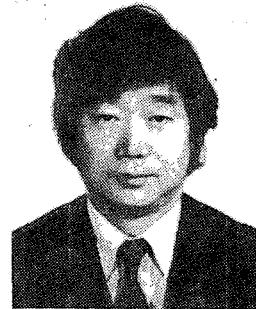


環境權과 새로운 挑戰

鄭 勇

〈本協會 專門委員〉

〈延世大 環境公害研究所 教授〉



1962년 경제개발정책 실시에 따라 급속한 산업의 발전은 괄목할만하여 現今에 이르러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5차 경제개발정책 까지는 주로 產業化, 都市化, 工業團地化 등의 經濟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갑자기 대량으로 많은 廢棄物이排出되게 되었다.

都市에서는 집중되어 증가된 인구로부터 쓰레기, 住宅煤煙・下水의排出, 그리고 車輛增加로 자동차에서 내뿜는 有毒ガス 및 煤煙은 都市의 大氣 그리고 주변의 하천을 크게 汚染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主要都市의 大氣污染은 環境基準인 亞黃酸ガス(SO_2) 0.05ppm을 초과하고 있으며 都市나 工業團地 인접 하천은 汚染되어 水質等級으로 보아 上水源水 2~3等級이며 또한 沿岸도 대부분 汚染되어 水產用水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古來로부터 우리나라는 錦水江山으로 하늘은 맑고 물은 그지없이 깨끗하고 風景은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칭송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하늘은 뿐영고 강물은 廢水로 汚染되어 있으니 그러한 칭송을 다시 듣기는 힘들다.

都市나 工團周邊의 汚染된 空氣, 망쳐진 風景으로 주민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기 위하

여 비용을 들이면서 아직까지 保存된 경치를 찾아간다.

경치를 주변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찾는데 드는 비용을 機會費用이라고 한다.

이러한 環境汚染은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장은 거의 없다. 水質이 좋지 않으면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다. 더욱 食品工業에서는 水質의 제한을 특히 받는다. 食品이 汚染되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汚染된 유역에서는 물을淨化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결국淨水費用은 製品價를 올리는 요인이 되며 이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물론 環境汚染物質들은 인체에도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많은 외국의 實例報告가 있다.

汚染된 도시인들이 농촌인들보다 肺癌의 발생율이 높다는 것, 또한 日本에서의 水銀에 의한 海洋汚染으로 일어난 신경성 질환인 「미나나따」, 「카드뮴」의 上水源 및 농작물의 汚染으로 일어난 軟骨化되는 질환인 「이따이·이따이」 병들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環境汚染問題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은 금세기의 최대의 과제라 본다.

生活環境이 지저분하게 되고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없는 空氣,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물 속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누구나 쾌적한 環境속에서 살 권리가 있다.

汚染된 環境속에서 산다는 것은 권리를 잃는 경우가 된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環境權」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깨끗한 環境을 지킬 의무와 쾌적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産業體에서 내뿜는 쓰레기, 연기, 도시의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연기, 도시하수, 차량들에서 내뿜는 매연들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環境汚染物質의 발생원인은 산업체에게만 있지 않다. 주민도 廢棄物을 같이 버리고 있으며 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서로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산업체는 제품의 가격속에 생산비가 포함되므로 1차적으로 環境污染防治의 책임이 있다.

국민은 環境汚染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가 물론 생산업체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나 환경오염물질배출에 관한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環境污染防治를 위한 하수도 건설, 도시하수처리장 건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 汚染排出源의 감시망 등 공공위생 보호시설 및 행위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복지 국가를 건설하여 자손만대로 이땅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을 느낀다.

生活環境이 쾌적하여야 함은 기본적인 복지의 우선적 요건이라 하겠다.

선진국들은 2차대전 이후 경제부흥정책으로 산업의 발달을 조장하여 環境汚染을 크게 경험

하게 되고 지금은 環境淨化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들이다.

美國은 앞으로 1985년 이후부터는 공장에서는 절대로 廢水나 廢棄物을 버리면 안된다는 「Zero discharge」를 법제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공장은 廢棄物의 완전처리화, 원료의 절약등의 새로운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벌써부터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美國의 이러한 제도는 이것을 제도화한 당시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설정은 環境保全을 위한 것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는 또 다른 得을 얻게 되었다.

원료를 적게 쓰거나, 汚染物質을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은 環境을 보전하게 되고 인간이 보다 쾌적한 곳에 살게되어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이 되며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므로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이제부터 보다 밝고 명랑한 복지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먼저 環境污染防治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環境汚染을 일으키는 원인행위는 국민 누구나 하고 있다. 또한 그 環境汚染의 피해도 모두다 받는다. 쾌적한 環境에서 살 環境權은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권인 동시에 의무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다시 회복하여 세계에 과시할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

더우기 「88올림픽」은 韓民族의 모든 역량을 들어내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로운 動機와 次元에 들어선 것이다.

環境保全問題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政治·文化·產業·經濟 그리고 教育 등 모든 인간의 생활속에서 비롯하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보여주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실제 生活의 質을 올리고, 건강을 지키며 증진시키기 위한 것

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環境保全對策은 보다 未來指向的이며 具體的이어야 할 것이다.

環境汚染物質들의 環境基準 및 排出基準은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모든 분야가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大氣污染 감축을 위하여서는 에너지를 생산 또는 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계획적이어야 하며 대책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 수송과 저장, 각종 내연기관의 燃燒效率 改善對策, 에너지 이용계획에 따른 高에너지 산업으로부터 저에너지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경, 에너지 절약대책 그리고 大氣汚染物質의 발생억제기술개발을 위한 방안등이 年次別 목표기준에 따라 시행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목표기준의 설정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어느정도 정확히 파악하고 推計하여야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앞으로 人間生活樣相의 變遷, 산업의 발전, 경제동향등의 각종 요인들이 명확히 파악되어야 될 것이다. 물론 이들 요인들의 推定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추정

모델의 正合度 檢定을 시행함으로서 교정하도록 한다.

현재까지는 국가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서는 일부지역 주민들은 약간의 부담이나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복지와 특히 국민건강 및 생활과 관련된 環境污染에 대하여서는 소외된 국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환경污染에 따른 국민생활 파괴와 건강 장해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環境汚染物質의 健康障害의 평가는 지금까지 대체로 汚染指標物質에 대하여 종괄적으로 다루워 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汚染物質의 등장, 현재까지 汚染指標物質이 아닌 有毒性物質의 環境汚染物質에 대하여 보다 調査·研究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이제 環境保全의 政策, 研究 및 실천 방향은 再定立하여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역사의 새로운 轉機에 달하여 環境保全分野의 보다 많은 배려와 노력이 傾注되어야 될 것이다.

*

의식개혁 9대실천요강

정직 모든 생활은 정직에 원칙을 두고 새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신풍조를 과감히 추방한다.

질서 모든 생활의 기초를 질서에 두고 이를 체질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경주한다.

창조 왜곡된 미풍양속의 본질을 되찾아 민족정기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책임 모든 공식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등 고질적인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를 철저히 책임지는 풍토를 확립한다.

본분 각자가 자기본분에 충실히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분수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각종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정립한다.

주인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부정·비리와 무질서에 대한 견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한다.

국민화합 지나친 이기주의와 뿌리깊은 파벌, 연고의식을 철저히 불식함으로써 국민화합의 기반을 확충한다.

가정교육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